

『鄉藥集成方』과 『醫林撮要』의 比較考察

金 洪均

The Comparative Study of 『Hyangyakjipseongbang』 and 『Euirimchalyo』

Kim Hong-kyoon

More correlations are expected to be forme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ree medical prescription texts, 『Hyangyakjipseongbang』, 『Euirimchalyo』 and 『Dongeuibogam』. And to firmly systemize the medicine native to Korea, more studies should be done on it, added to comparatively studies of native medical prescription texts.

I. 序論

世宗 때의 醫藥濟民의 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世宗 3년에 黃子厚를 明에 보내어 唐藥에 대해 窮究하게 한 이후로, 수차에 걸쳐 전문가들을 국외에 파견하여 鄉藥과 唐材를 비교연구하고, 아울러 우리 약재의 분포 실태 조사에 의한 『世宗地理志』를 발간(世宗 6년)하고, 이에 따른 『鄉藥採取月令』을 발간(世宗 13년)하여 우리 약재에 대한 풍부한 지식기반을 다져 왔다.

그러나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鮮初에 발간되었던 『鄉藥濟生集成方』(태조 7년)을 기본으로 하여 당시의 모든 醫書들을 모아 분류첨가해서 『鄉藥集成方』(世宗 15년)을 만들었으니, 그 방대함은 물론 국가적 사업으로 金顯宗 直提學 俞孝通을 위시한 여러 碩學들이 약 2년간의 각고 끝에 거의 誤字없이 만들었다는 것이 우선 놀랍다. 게다가, 우리의 鄉藥方書와 經驗方을 총망라하여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어떠한

방법도 가리지 않고 기록된 것을 보면 당시 운용되었던 의학정보의 소중함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세종 때 初刊(1443년)된 이래로 85권에 이르는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復刊(1454년, 1456년, 1478년)과 重刊(1633)을 거쳐, 오늘날에까지(1943년, 1944년, 1945년, 1973년) 여러 판을 거듭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면 그 위력이 실로 대단하다 하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국가적 사업으로 많은 공을 들여 만든 『集成方』의 활용도는 어떠하겠는가? 실제로 그것을 일일이 考究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각 의적문헌에 어느 정도 인용되어 쓰여지고 있는지가 그 해답의 일부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것이다. 여기서는 『鄉藥集成方』이 처음 발간된 지 100여 년 정도 지난 조선중기의 『醫林撮要』를 통해 『集成方』의 활용도를 알아보려고 한다.

II. 本論 및 考察

1. 인용문헌의 고찰

『醫林撮要』에 인용되어 있는 『鄉藥集成方』의 내용은 모두 治方에 관하여 인용되어 있으며, 醫論에 관해서는 다만 1개 조문이 인용되어 있을 뿐이다. 治方은 모두 24개 處方과 85개 單方이 인용되어 있는데, 24개 처방도 대부분 간략한 몇 개의 약재가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부분이 2~4개의 약재가 이용될 뿐이며, 6가지 이상 들어가는 경우는 불과 3개 처방밖에 되지 않는다.

1) 醫論에 관하여

醫論에 있어서는 『鄉藥集成方』에서 인용된 것이라곤 ‘婦人乳汁不通，有二種，有血氣壅盛，乳脉滯而不可通者，有血氣虛弱，乳汁絕少者。虛者補之，用鍾乳 猪蹄 鯽魚之類，盛者行之，通草 漏蘆根 土瓜根之類¹⁾’의 단 1개 조문²⁾뿐이다. 이처럼 醫論의 인용이 『醫林撮要』에 적게 되어 있는 이유는 『集成方』에서는 宋代의 『太平聖惠方』이나

1) 楊禮壽, 『醫林撮要』, 卷之十二, 産後門(한국의학대계, 10권, 251쪽)

2) 이는 『鄉藥集成方』의 「産後乳汁或行或不行」條(杏林書院, 501쪽)에 『三因方』을 인용하여, ‘論曰, 産婦, 有二種, 乳脈不行, 有氣血盛, 而壅閉不行者, 有血少氣弱澁, 以不行者. 虛當補之, 盛當疏之, 盛者當用 通草 漏蘆 土瓜根輩 虛者當用 成煉鍾乳粉 猪蹄 鯽魚之屬, 槩可見矣’라 되어 있다.

『聖濟總錄』, 그리고 『三因極一病證方論』 등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醫林撮要』는 이미 ‘金元四大家’의 醫學理論이 충분히 습득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도 丹溪學派의 영향을 받은 虞搏의 『醫學正傳』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醫論에 있어서의 기본 틀은 이미 宋代가 아닌 明代를 중심³⁾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集成方』의 醫論을 『醫林撮要』에서는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治方の 분포에 관하여

治方に 있어서는 앞서서도 언급한 것처럼 『鄉藥集成方』에서 30개 處方과 92개 單方으로 모두 122개 治方⁴⁾이 『醫林撮要』에 인용되어 있다. 각 門에 인용되어 있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골고루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醫林撮要』의 각 門別로 다음과 같이 나누면 쉽게 알 수 있다.

卷之一	傷寒門	1개 처방	卷之六	三消門	11개 단방
卷之二	瘟疫門	6개 단방			1개 처방
	內傷門	17개 단방		頭痛門	5개 단방
		1개 처방		胃脘痛門	1개 단방
卷之三	痞滿門	1개 처방		脅痛門	1개 처방
	嘔吐門	1개 처방		耳病門	3개 단방
	咳逆門	1개 처방		面病門	2개 처방 ⁵⁾
	積聚門	1개 처방			5개 단방 ⁶⁾
	痰飲門	4개 처방		眼目門	1개 처방

3) 拙著, 『醫林撮要』의 醫史學的 研究, 100~101쪽.

4) 원래는 『醫林撮要』에서 『鄉藥集成方』을 ‘集成方’, ‘鄉藥集成方’, ‘集成’, ‘鄉藥方’ 등으로 인용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계산하면, 單方이 96개이고 複方の 處方이 31개로 써 모두 127개 治方이 되나, 실제로 『集成方』에 보이지 않는 單方 1개와 複方の 處方 4개를 제외하여 122개 治方으로 결정하였다.

5) 이 중 하나는 『醫林撮要』, 卷之六, 面病門(黑潮社, 324쪽)에 ‘冬瓜洗面藥 治眼面不潔, 蒼黑無色. 冬瓜一介 右用竹刀子去 青皮 切片 酒一升半 水二升 同煮爛, 用綿濾, 去滓, 再以布子濾過熬成膏, 入蜜一斤, 再熬稀稠得所新綿, 再濾磁器收用時栗子大, 津唾調塗面上, 用手擦. 鄉藥方, 洗面方’이라 되어 있기 때문인데, 『鄉藥集成方』에는 이 처방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계산되는 122개 治方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6) 이 중 둘은 『醫林撮要』, 卷之六, 面病門(黑潮社, 323쪽)에 ‘○又方, 熊脂, 能治黥黥. ○肺風瘡, 無灰酒濃 磨鹿角尖 傅之兼服’이라 되어 있기 때문인데, 『鄉藥集成方』에는 이 내용이 없다. 따라서 여기에 계산되는 122개 治方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卷之四	咳嗽門	2개 단방	口舌病門	1개 처방
		6개 처방	卷之八 喉痺門	1개 처방
卷之五	虛損門	2개 처방	卷之九 傷損門	2개 처방
	怔忡驚悸健忘門	2개 단방		5개 단방
	癲狂癩證門	1개 처방	卷之十 癩風門	2개 처방
			卷之十一 胎前門	27개 단방 ⁷⁾
			卷之十二 產後門	12개 단방
				1개 처방
				1개 조문

이상에서 보면 『醫林撮要』의 13권 가운데 卷之七과 卷之十三의 2권을 제외하고 거의 전편에 걸쳐서 『鄉藥集成方』을 비교적 고르게 인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醫林撮要』를 편성함에 있어서 『集成方』을 각 門마다 의도적으로 힘써 인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醫林撮要』에 『集成方』이 비중있게 다뤄지고 있다는 것은 또한 그 활용가치가 높다는 의미도 된다.

3) 治方の 引用文獻에 관하여

『醫林撮要』에 표시된 『鄉藥集成方』의 문헌은 ‘集成方’이라 되어 있는 곳이 30군데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集成’ 5군데, ‘鄉藥集成方’과 ‘鄉藥方’이 각각 3군데의 순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그밖에 비슷한 표시로는 卷之五와 卷之七에 ‘鄉方’이라 되어 있는데 이는 내용상 『鄉藥集成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경우에 『東醫寶鑑』에서는 ‘鄉方’ 또는 ‘鄉藥’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東醫寶鑑』 전체를 통틀어 3군데 보이는데, 이는 『鄉藥集成方』의 내용을 『醫林撮要』에서 인용한 것을 재인용하여 ‘鄉方’이나 ‘鄉藥’으로 이름한 것이며, 『鄉藥集成方』의 직접인용도 아니고 다른 鄉藥 諸書의 축약된 이름도 아니다. 즉, 『東醫寶鑑』은 원초적으로 鄉藥을 이용한 어떠한 醫方書도 인용하지 않았거니와, 그나마 3군데 인용된 것은 모두 『醫林撮要』를 통하여 『鄉藥集成方』이 재인용된 것뿐이다. 이에 비하면, 『醫林撮

7) 이 가운데 2개 單方은 『鄉藥集成方』에 없으므로, 여기에서 계산되는 治方の 개수에서는 제외시켰다. 제외된 2개의 單方은 『醫林撮要』, 卷之十一, 胎前門(海東醫學社, 國譯韓醫學大系, 8권, 醫林撮要, 4권, 본문 104쪽)에 ‘妊娠橫逆生 吞槐子二七枚, 新汲水嚥下, 如無槐子, 用小絹鍼於小兒脚心刺, 三五刺, 急用塩少許, 塗脚心刺處, 即時順生, 子母俱活, 用稻尖刺之, 尤妙’와 ‘又方, 以朱書, 左足下千字, 右足下黑字, 手足出者, 皆效’이다.

要』는 『鄉藥集成方』 중에서도 우리 고유의 醫書인 『鄉藥惠民經驗方』, 『三和子鄉藥方』, 『鄉藥簡易方』, 『本朝經驗方』, 『鄉藥救急方』 등의 인용에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이를 각 門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卷之一	傷寒門	『三因極一病證方論』 ⁸⁾ 1개 醫方書.
卷之二	瘟疫門	『傷寒類要』, 『經驗方』 ⁹⁾ , 『肘後備急方』 ¹⁰⁾ , 『太平聖惠方』 ¹¹⁾ , 『千金方』 등 5개 醫方書.
	內傷門	『太平聖惠方』, 『居家必用方』 등 2개 醫方書.
卷之三	痞滿門	『聖濟總錄』 1개 醫方書.
	嘔吐門	『太平聖惠方』 1개 醫方書.
	咳逆門	『聖濟總錄』 1개 醫方書.
	積聚門	『本朝經驗方』 ¹²⁾ 1개 醫方書.
	痰飲門	『瑞竹堂經驗方』 ¹³⁾ , 『濟生拔粹方』, 『太平惠民和劑局方』 ¹⁴⁾ , 『三因極一病證方論』 등 4개 醫方書.
卷之四	咳嗽門	『本朝經驗方』, 『鄉藥惠民經驗方』, 『千金方』, 『是齋百一選方』 ¹⁵⁾ , 『朱氏經驗方』, 『神効名方』, 『聖濟總錄』 등 7개 醫方書.
卷之五	虛損門	『太平聖惠方』, 『瑞竹堂經驗方』 등 2개 醫方書.
	怔忡驚悸健忘門	『太平聖惠方』, 『千金方』 등 2개 醫方書.
	癲狂癩證門	『太平聖惠方』 등 1개 醫方書.
卷之六	三消門	『太平聖惠方』, 『聖濟總錄』, 『廣利方』, 『外臺秘要』, 『事林廣記』, 『食醫心鏡』, 『永類鈴方』 ¹⁶⁾ 등 7개 醫方書.
	頭痛門	『本草』, 『肘後備急方』, 『孫真人食忌』, 『聖濟總錄』, 『千金方』 등 5개 醫方書.
	胃脘痛門 ¹⁷⁾	

8) 『鄉藥集成方』에는 『三因方』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하 같음.

9) 이는 어떤 ‘經驗方’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용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하다.

10) 『鄉藥集成方』에는 『肘後方』이라고 되어 있다. 이하 같음.

11) 『鄉藥集成方』에는 『聖惠方』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하 같음.

12) 『鄉藥集成方』에는 『本朝經驗』 또는 『本朝經驗方』이라고 되어 있다. 이하 같음.

13) 『鄉藥集成方』에는 『瑞竹堂方』이라고 되어 있다. 이하 같음.

14) 『鄉藥集成方』에는 『和劑局方』이라고 되어 있다. 이하 같음.

15) 『鄉藥集成方』에는 『百一選方』이라고 되어 있다. 이하 같음.

16) 『鄉藥集成方』에는 『永類方』이라고 되어 있다. 이하 같음.

	脅痛門	『永類鈴方』 1개 醫方書.
	耳病門	『太平聖惠方』 1개 醫方書.
	面病門	『太平聖惠方』, 『三和子鄉藥方』 ¹⁸⁾ 등 2개 醫方書.
	眼目門	『太平聖惠方』 1개 醫方書.
	口舌病門	『經驗良方』 1개 醫方書.
卷之八	喉痺門	『鄉藥簡易方』 ¹⁹⁾ 1개 醫方書.
卷之九	傷損門	『太平聖惠方』, 『神醫普救方』 ²⁰⁾ , 『聖濟總錄』, 『本朝經驗方』, 『鄉藥簡易方』, 『外臺秘要』 등 6개 醫方書.
卷之十	癩風門	『太平惠民和劑局方』, 『太平聖惠方』 등 2개 醫方書.
卷之十一	胎前門	『是齋百一選方』, 『本草』, 『鄉藥救急方』, 『千金方』, 『世醫得效方』, 『催生神方』, 『子母秘錄』, 『外臺秘要』 등 8개 醫方書.
卷之十二	產後門	『婦人大全良方』, 『太平聖惠方』, 『千金方』, 『本草衍義』 ²¹⁾ , 『三因極一病證方論』, 『子母秘錄』 등 6개 醫方書.

즉, 『三因極一病證方論』, 『傷寒類要』, 『經驗方』, 『肘後備急方』, 『太平聖惠方』, 『千金方』, 『居家必用方』, 『聖濟總錄』, 『本朝經驗方』, 『瑞竹堂經驗方』, 『濟生拔粹方』, 『太平惠民和劑局方』, 『鄉藥惠民經驗方』, 『是齋百一選方』, 『朱氏經驗方』, 『神効名方』, 『廣利方』, 『外臺秘要』, 『事林廣記』, 『食醫心鏡』, 『永類鈴方』, 『本草』, 『肘後備急方』, 『孫真人食忌』, 『三和子鄉藥方』, 『經驗良方』, 『鄉藥簡易方』, 『神醫普救方』, 『本草』, 『鄉藥救急方』, 『世醫得效方』, 『催生神方』, 『子母秘錄』, 『婦人大全良方』, 『本草衍義』 등 모두 35개 醫方書들이 『鄉藥集成方』을 통하여 재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醫林撮要』에서는 비록 『鄉藥集成方』에서 이들을 재인용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唐代, 宋代, 金元代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麗末鮮初의 諸方書들을 비교적 폭넓고도 고르게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선택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을

17) 『醫林撮要』에는 1개의 단방이 『鄉藥集成方』에서 인용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실제로는 『鄉藥集成方』에 있는 治方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제외시켰다.

18) 『鄉藥集成方』에는 『三和子方』이라고 되어 있다. 이하 같음.

19) 『鄉藥集成方』에는 『簡易方』 또는 『鄉藥簡易方』이라고 되어 있다. 이하 같음.

20) 『鄉藥集成方』에는 『普救方』이라고 되어 있다.

21) 『鄉藥集成方』에는 『衍義』라고 되어 있다. 이하 같음.

것이다. 우선, 『鄉藥集成方』 자체가 비교적 몇 가지 안되는 간단한 약재를 위주로 처방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簡而明’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集成方』을 좋은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集成方』이 간단한 처방을 쓰고는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처방을 구성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에, 민가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찾아 쓸 수 있는 약재를 골라 놓은 것이다. 쉽고 평이한 약재는 醫藥濟民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것이지만, 국가적으로도 약재의 수급사정상 긴요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2. 治方の 분석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鄉藥集成方』에서 『醫林撮要』에 재인용된 醫書들을 살펴보면, 楊禮壽의 『集成方』의 인용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기에 治方の 인용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따져 확실한 처방을 도출해낸 것이다. 때로는 오류를 바로 잡기도 하고, 때로는 복잡한 調劑를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줄여 食治로 응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구하기 어려운 약재는 다른 쉬운 약재로 대체하기도 하고, 어려운 표현들은 쉽게 하면서도 丹溪學派의 영향을 받은 자신의 소신을 조심스럽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 때로 그것이 지나쳐 오히려 수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이에 대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1) 修正의 誤謬

어떤 책에서도 誤謬는 없을 수 없을 것이나 『鄉藥集成方』이 원문에 충실하고자 하였다면 『醫林撮要』는 그 이치를 따져 오류가 있을 때는 과감히 수정하고 있다. 그것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반영시킴으로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여기서는 먼저 잘못된 수정을 언급하고자 한다. 『醫林撮要』에 그런 잘못된 수정이 몇 군데 되진 않지만, 이것 역시 후대에 미치는 과장을 고려할 때 중요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醫林撮要』의 「傷寒門」에 있는 ‘猥鼠糞湯’을 보자.²²⁾

22) 楊禮壽, 『醫林撮要』, 卷之一, 傷寒門(黑潮社, 84쪽)

猥鼠糞湯 治傷寒病後, 男子陰易痛. 與女子交通也. 韭根 一大把去青握約經寸半, 猥鼠糞十四枚兩頭尖者. 右水二盞, 煎至六分, 頓服, 汗出爲度. 袖珍寒門, 集成方. ○一方加豆豉三錢.

傷寒을 앓은 뒤에 남자가 陰陽痛이 있는 것을 다스린다(여자와 더불어 교통한 것이다). 韭根(괴린 것은 버린다) 한 큰 움큼(움큼은 둘레가 약 1촌 반이다) 猥鼠²³⁾糞(양쪽끄트머리가 뾰족한 것) 14매를 물 2잔을 부어 6푼이 되도록 달인 다음 한번에 먹는데, 땀이 날 때까지 한다(『袖珍方大全』 寒門, 『鄉藥集成方』 ○어떤 처방에는 豆豉 3돈을 더했다).

여기서 ‘陰陽’이라 했으나 『三因方』²⁴⁾과 『鄉藥集成方』²⁵⁾에는 ‘陽易’이라 하였다. 이것은 『諸病源候論』에서부터 ‘陰易’과 ‘陽易’이 구분²⁶⁾된 이래 그 본지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醫林撮要』에서는 ‘陽易’을 ‘陰易’이라고 바꿔버렸다. 그 이유는 남자에게 여자로 인해 발생된 질병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즉, 병의 원인을 楊禮壽는 이미 傷寒病이 끝나서 병이 나오려고 하는데 여자와 교접을 하여 여자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본 것이다. 원래 『諸病源候論』이나 『三因方』 그리고 『鄉藥集成方』의 의미는 傷寒病이 아직 낫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와 교접함으로써 든 병을 ‘陽

23) ‘猥鼠’는 ‘수돼지와 쥐’를 뜻하므로 단일 약재의 이름으로는 옳지 않으나, 『三因方』과 『鄉藥集成方』에서도 ‘猥鼠’라고 되어 있으므로 『醫林撮要』는 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발음상 ‘수돼지’를 뜻하는 ‘猥豬’와 비슷하기 때문에 ‘猥豬’를 ‘猥鼠’로 표기한 것 같다. 그러나, 『東醫寶鑑』에도 똑같이 ‘猥鼠’라고 되어 있긴 해도 이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 뒤에 인용문헌의 표시가 ‘海藏’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元代의 王好古의 글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猥鼠, 雄鼠也. 糞兩頭尖者, 是也’라고 되어 있다. 즉, 앞의 ‘猥’에서는 다만 수컷이라는 의미를 받아 들였고, 뒤의 ‘鼠’를 본딤말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의 ‘猥’는 뒤의 ‘鼠’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사로 취급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결국 『東醫寶鑑』에서는 ‘猥鼠’를 ‘수컷 쥐’로 보았기 때문에, ‘猥鼠糞’은 ‘쥐똥’인 것이고 수컷의 쥐똥은 양끝이 뾰족하다는 말이다. 許浚의 이러한 생각의 단초는 『醫學入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서 첫째는, 『東醫寶鑑』의 인용구가 ‘海藏’이라 되어 있지만, 王好古의 글에는 ‘陰陽易病’이 들어있지도 아니하며, 따라서 이러한 陰陽易病의 경우에 쓰는 ‘猥鼠糞湯’도 없다. 두 번째는, 『醫學入門』에 ‘[猥鼠糞湯] 韭白一把 雄鼠糞十四枚’이라 되어 있어 ‘猥鼠糞’의 ‘猥’를 아예 ‘雄’이라 고쳐 ‘雄鼠糞’이라 하였다. 세 번째는 『醫學入門』이 『東醫寶鑑』의 인용된 빈도로서 높은 비율을 가진다는 것이다.

24) 陳言, 『三因極一病證方論』, 卷四, 「陰陽易證治」(麗江出版社, 『中國醫學大系』, 11권, 743-209쪽)

25) 『鄉藥集成方』(杏林書院, 43쪽)에 『三因方』을 인용하여 ‘[猥鼠糞湯] 治男子傷寒病後, 女人與之交接, 病名陽易. 韭根去青一握(約徑寸半) 猥鼠糞十四枚兩頭尖者 ○右以水一鍾, 煎至六分, 頓服, 以汗出爲愈’라고 되어 있다.

26) 巢元方, 『諸病源候論』, 第六章, 七十五論, 「傷寒陰陽易候」(大城出版社, 596쪽)

易'이라 한 것이고, 여자에게 생긴 그 반대의 경우를 '陰易'이라 한 것이다. 즉, 이것은 여자로 인해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병이 다 낫지 않은 남자에게 새로이 더 병이 추가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醫林撮要』에서의 분명한 오류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류가 어떻게 발생되었을까? 『醫林撮要』를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楊禮壽는 상당히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는지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 대강은 이렇다. 이러한 오류의 원인은 『三因方』에서부터 있었던 것이다. 원래 『諸病源候論』에서 '其男子病新瘥, 未平復, 而婦人與之交接, 得病者, 名陽易'이라고 분명하게 밝혀놓았지만, 이를 『三因方』에서 옮기면서 '丈夫傷寒病後, 女人與之交接, 名曰陽易'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陳言에게는 잘못이 없다. '傷寒病後'라고 해서 傷寒病이 끝난 상태를 말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陳言은 『諸病源候論』을 축약한 것뿐이지 잘못 해석했다고 여겨질 만한 말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표현은 傷寒病이 끝난 상태로 파악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鄉藥集成方』에서 그대로 인용한 楊禮壽로서는 잘못 인식하여 여자와 교접을 하였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것으로 파악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오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楊禮壽의 『醫林撮要』를 따른 許浚은 똑같은 잘못을 『東醫寶鑑』에서 저지르게 된다. 『東醫寶鑑』 27)에서도 '陰易'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東醫寶鑑』에서는 인용문헌을 표기하기를 '海藏'이라 하였기 때문에 王好古의 문헌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앞의 註釋에서도 언급했다시피 王好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王好古의 어떠한 문헌에도 '猥鼠糞湯'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許浚의 잘못은 李梴의 『醫學入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東醫寶鑑』은 『醫林撮要』보다도 『醫學入門』에 비교적 충실하게 따르는 편인데, 이 『醫學入門』에 '治男子陰易'이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醫林撮要』도 『醫學入門』을 따른 것이라고 하기에 는 그 인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醫林撮要』의 「嘔吐門」에 있는 '薤白湯'에서 비슷한 경우를 볼 수 있다.²⁸⁾

27)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三(南山堂, 400쪽)

28) 楊禮壽, 『醫林撮要』, 卷之三, 嘔吐門(黑潮社, 152쪽)

薤白湯 治胃氣虛弱, 不能飲食, 食則嘔吐, 四肢瘦弱, 少力. 薤白 七莖 粳米 半合 棗 四枚 陳皮 去白三分 ○卽七錢半 枳實 四枚 生薑 二錢半 豉 四十九粒 右切, 都以水一大盞半, 煎至八分, 不計時, 稍熱分二服. 若胃中寒熱, 嘔吐, 煩渴, 生薑半兩取汁 糯米半合淘洗研 蜜一合 右相和, 入新汲水一中盞, 分爲二服. ○集成, 嘔吐門

胃氣²⁹⁾가 허약하여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먹으면³⁰⁾ 바로 토하고 사지가 여위고 약하며³¹⁾ 기운이 없는 것을 다스린다. 薤白 7뿌리 粳米 반홉³²⁾ 棗 4매 陳皮³³⁾ 속껍질의 흰 부분을 제거한 것 3푼 ○ 곧 7돈 반이다³⁴⁾ 枳實³⁵⁾ 4매 生薑 2돈반³⁶⁾ 豉 49알을 썰어 한 데 모아서 큰 사발로 물 1대접반을 넣고 8푼이 되도록 달여, 때를 가리지 말고 조금 뜨겁게 2번에 나누어 마신다. 만일 胃중의 寒熱로 嘔吐, 煩渴³⁷⁾이 있을 때는, 生薑汁 반냥 糯米를 일어 잘 씻어 간 것 반홉 蜜 한홉을 잘 섞어 새로 길은 물을 중간 대접으로 한 대접에 타서 2번 나눠 마신다.(『鄉藥集成方』 嘔吐門)

- 29) 이는 『鄉藥集成方』에 ‘胃’라고만 되어 있지 아니하고 ‘脾胃’라고 표현되어 있다.
- 30) 이는 『鄉藥集成方』에 ‘食’이라 되어 있지 아니하고 ‘飲食’이라 되어 있다. 아마도 『鄉藥集成方』에서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太平聖惠方』, 卷第五, 「治脾胃氣虛弱嘔吐不下食諸方」(平常心出版社, 권1, 127쪽)에는 ‘食’이라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의미상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31) 이는 『鄉藥集成方』에 ‘四肢羸瘦’라 되어 있다. 그러나, 본래의 뜻에는 ‘羸瘦’은 ‘瘦弱’이든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며, 『太平聖惠方』에도 ‘羸瘦’라 되어 있다.
- 32) 이는 『太平聖惠方』에 ‘半兩’이라 되어 있는 것을 『鄉藥集成方』에서 ‘半홉’이라 옮겼고, 이를 『醫林撮要』에서 그대로 ‘半홉’이라 한 것 같다. 이는 용량에 있어서 약간의 증량이 이루어진 것이지만, 『醫林撮要』의 곳곳에 나타나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楊禮壽가 『聖惠方』과 대조를 해보고서도 『集成方』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 33) 이는 『鄉藥集成方』과 『太平聖惠方』에 모두 ‘陳橘皮’라고 되어 있다. 여기 『醫林撮要』에서 ‘陳皮’로 바꾼 것은 아마도 약재의 수급사정상 橘皮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34) 이 ‘○卽七錢半’에서 ‘○’의 표식과 나머지 ‘卽七錢半’의 네 글자는 무슨 뜻으로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아마도 誤植인 것으로 보인다.
- 35) 이는 원래 『太平聖惠方』에서나 『鄉藥集成方』에서도 ‘麩炒微黃’하게 되어 있는 것을 『醫林撮要』에서는 삭제하였다. 枳實을 麩炒하는 것은 그것이 破氣하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완화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여기서 麩炒함을 뺀 것은 그만큼 약재를 강하게 쓰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醫林撮要』의 곳곳에 枳實을 麩炒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원문과 상관없이 楊禮壽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인다.
- 36) 이는 『太平聖惠方』에는 ‘一分’으로 되어 있고, 『鄉藥集成方』에는 ‘一錢’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醫林撮要』에서 ‘二錢半’으로 고쳐졌다. 原方의 ‘1푼’은 전체적으로 처방의 구성상 너무 적은 양인 것을 『鄉藥集成方』에서 增量하여 ‘1돈’으로 하였으나, 『醫林撮要』에서는 이것도 너무 적다고 판단하여 훨씬 많은 ‘2돈반’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37) 이는 『鄉藥集成方』에 ‘治胃中實熱, 吐逆不受飲食, 心神煩渴’이라 되어 있고, 『太平聖惠方』에서는 이 薤白湯과는 관련없이 별도로 卷第五의 「治胃實熱諸方」의 마지막에 ‘治胃中實熱, 吐逆不受飲食, 心神煩渴, 宜服此方’이라 되어 있다.

여기에서 陳皮는 『鄉藥集成方』에 ‘陳橘皮 三錢’이라 되어 있고, 『太平聖惠方』에 ‘陳橘皮 三分’이라 되어 있다. 결국, 『聖惠方』에서 ‘三分’이라 한 것을 『集成方』에서 ‘三錢’이라 하여 그 분량이 『聖惠方』과 틀리게 되어 있는 것을 『醫林撮要』에서 수정하여 본래 『聖惠方』의 ‘三分’으로 돌려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楊禮壽가 『集成方』을 참고할 때 인용되어 있는 『聖惠方』도 같이 비교하여 참조하면서 원본에 충실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하기에 오히려 陳皮의 行氣하는 작용의 분량으로서는 다른 약재의 종류나 용량으로 볼 때 턱없이 모자라는 분량이 되고 말았다. 실제로 『醫林撮要』에서 이렇게 약재의 종류가 적은 상태에서, 陳皮를 5푼 이하로 쓰는 경우는 여기 외에는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2) 誤謬의 修正

『醫林撮要』에 인용된 많은 부분에 있어 『鄉藥集成方』의 오류를 수정하였는데, 그것은 『集成方』이 인용한 原本과 대조해서 틀린 부분을 수정한 것도 있고, 『集成方』의 내용이 이치에 맞지 않아 자신의 견해에 맞추어 수정한 부분도 있다. 또한 임상적으로 실제 楊禮壽가 사용해 보고 효과의 과장됨이 있는 것들은 그러한 과장을 삭제한 것도 많이 있다. 많은 것을 일일이 여기에 가려 뽑을 수는 없으므로 楊禮壽 자신의 의학적 견해가 있다고 보이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소개하고자 한다.

① 黃雌雞餛飩

노인이 脾胃의 氣가 약하여 자주 먹지도 못하고 마르는 것을 다스린다. 누런 암탉고기 4냥 흰 밀가루 7냥 파뿌리 2되를 썰어 만두를 만들고 소금과 산초를 뿌려 장맛을 낸 다음 푹 저서 먹는다.³⁸⁾ (『鄉藥集成方』³⁹⁾痞門 脾門⁴⁰⁾)

38) 楊禮壽, 『醫林撮要』, 卷之二, 「內傷門」(黑潮社, 105쪽)

黃雌雞餛飩 治老人脾胃氣弱, 不多食, 痿瘦. 黃雌雞 取肉四兩 白麵 七兩 葱白 二合 右切和作餛飩, 下鹽椒醬味調和, 熟煮食. 集成, 痞門, 脾門.

39) 이는 『鄉藥集成方』(杏林書院, 206쪽)에 「脾胃門」의 『居家必用方』을 인용하여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居家必用方』이 어떤 것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必用方’이라 이름 붙여 있는 것으로는 宋初에 虞世(1078~1085年)에 의해 씌어진 『古今錄驗養生必用方』이 있으나, 『證類本草』에 14條가 인용되어 있을 뿐 이미 佚失되고 없기 때문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

40) 여기서 말하는 ‘痞門’은 『鄉藥集成方』에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脾門’도 『鄉藥集成方』에 ‘脾胃門’이라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脾門’이라 함은 ‘脾胃門’을 그렇게 줄여서 표현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痞門’은 납득되기 어려운 감이 있다. 왜냐하면, 『鄉藥集成方』에 없다는 것은 다른 책의 ‘痞門’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책의 ‘痞門’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는 없지만, 다만 **끄트머리**에서 간을 맞춘이 『醫林撮要』는 소금과 산초로 하고 『鄉藥集成方』에서는 ‘下塩椒醬味調和熟煮食’ 대신에 ‘下椒薑五味調和煮熟空心日一服’라 하여 산초와 생강에다가五味로 맛을 내는 것이 다르다. 이는 『醫林撮要』의 전반에 흐르는 사상이 金元四大家의 朱丹溪의 영향을 받은 虞天民의 『醫學正傳』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곳과 같이 맛을 냄에 있어서도 辛熱한 性味를 가지는 것들을 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② 治咳逆方

잘라서 노랗게 볶은 乾柿子⁴¹⁾, 薄荷⁴²⁾, 陳皮⁴³⁾를 똑같이 나누어⁴⁴⁾ 매번 3돈씩 물로 달여서⁴⁵⁾ 복용⁴⁶⁾한다.⁴⁷⁾ (『鄉藥集成方』)

이는 『聖濟總錄』⁴⁸⁾을 『鄉藥集成方』⁴⁹⁾에서 인용한 것이 『醫林撮要』에 소개되

이라면 그 책이 여기에 나란히 명기되어 있어야 할 터이지만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점이 이상하고, 그렇지 않고 오로지 『鄉藥集成方』만을 인용하였다면 ‘痞門’이라는 이름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즉, 있지도 않은 것을 머리에 떠올렸을 까닭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보고 그 책에 쓰여 있는 ‘痞門’을 옮겨 놓았을 것인데, 착오가 생겨 그 책이름이 여기에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41) 이는 『鄉藥集成方』과 『聖濟總錄』에 ‘乾柿’라고 되어 있다. ‘乾柿’는 ‘곶감’이 되지만 ‘乾柿子’는 ‘곶감씨’가 되므로, 『醫林撮要』의 誤謬라고 보여진다. 더구나, 바로 뒤에 나오는 ‘切炒黃’이라는 말을 보아서도, ‘切’이라는 말이 ‘곶감’에 붙는 말이지 ‘곶감씨’에 붙는 말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42) 이는 『鄉藥集成方』과 『聖濟總錄』에 모두 ‘乾薄荷葉’이라고 되어 있다.

43) 이는 『鄉藥集成方』과 이의 底本인 『聖濟總錄』에 모두 ‘陳橘皮去白焙’라고 되어 있다.

44) 이는 『鄉藥集成方』에 따르면 각각의 약재를 1兩씩 취해서 3錢을 복용하므로, 결국 10회면 복용이 끝나는 셈이다. 그러면, 하루에 3번 복용하라고 바로 뒤에 되어 있기 때문에, 3일을 복용하고 1번 더 복용하는 것이 되므로 복용날짜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를 『醫林撮要』에서는 때를 두지 않음으로 해서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45) 이는 『鄉藥集成方』에 ‘水一鍾半 煎至一鍾’이라 되어 있고, 『聖濟總錄』에 ‘水一盞 煎至七分’이라고 되어 있다.

46) 이는 『鄉藥集成方』과 『聖濟總錄』에 ‘溫服日三’이라 되어 있다.

47) 楊禮壽, 『醫林撮要』, 卷之三, 「咳逆門」(黑潮社, 156)

治咳逆方 乾柿子 切炒黃 薄荷 陳皮 右等分, 每服三錢, 水煎服. 鄉藥集成方.

48) 이는 『聖濟總錄』, 卷第六十六, 「咳逆短氣」條(人民衛生出版社, 上冊, 1200쪽)에 治咳逆, 殊效湯方에 ‘乾柿 細切炒令焦黑 乾薄荷葉 陳橘皮去白焙 各一兩 ○右三味, 粗搗篩,

어 있는 것이다. 楊禮壽의 의학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은 乾柿子의 修治法과 陳皮의 사용이다. 우선 陳皮는 우리 나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서 『集成方』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陳橘皮’의 사용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陳皮’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修治法에 있어서도 ‘焙’하지 않음은 火熱의 작용이 과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한 것으로 보인다. 乾柿子의 修治法에 있어서도 『鄉藥集成方』이나 『聖濟總錄』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즉, 약을 볶을 때 『醫林撮要』는 ‘노릇노릇’한 정도이고, 『鄉藥集成方』과 『聖濟總錄』은 ‘시커멓게 그을릴’ 정도이므로 그 強度에 있어서 『醫林撮要』는 완만한 작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것은 모두 ‘火熱’한 성질을 줄이기 위한 楊禮壽의 생각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③ 敵痰丸

가래가 성한 것을 다스리는데, 가슴을 풀어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黑丑⁵⁰⁾ 3냥 皂角 1냥⁵¹⁾(겉질을 버리고 쉰 불에 약간 태운다) 桔白礬 半夏麴 陳皮 각 1냥을 물에 개어 오동나무 열매 크기로 丸을 만들어 매번 40~50알씩 맑은 생강 물로 먹는다.(『鄉藥集成方』⁵²⁾痰門)

이는 『瑞竹堂經驗方』을 인용한 『鄉藥集成方』을 『醫林撮要』에 소개한 것이다. 楊禮壽의 의학사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은 半夏의 修治法과 和丸하는 調劑法이다. 半夏의 修治는 『集成方』과 『瑞竹堂方』에 ‘麴炒’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麴炒’라고 하지 않고 ‘麴’이라고만 한 것은 法製함에 있어 半夏를 누룩으로 ‘煨’하되 ‘炒’할 정도

每服三錢匕, 水一盞 煎至七分, 去滓溫服, 日三’이라고 되어 있다.

49) 이는 『鄉藥集成方』 卷二十六 「嘔吐門」(杏林書院, 200쪽)에 『聖濟總錄』을 인용하여 ‘定欬逆殊効’라는 제목 아래에 ‘乾柿細切炒令焦黑 乾薄荷葉 陳橘皮去白焙 各一兩 ○ 右麴末 每服三錢 水一鍾半 煎至一鍾 去滓 溫服日三’이라고 되어 있다.

50) 이는 『鄉藥集成方』과 이의 底本인 『瑞竹堂方』에 모두 ‘黑牽牛’라고 되어 있으나, 같은 약재의 異名일 뿐이다.

51) 이는 『鄉藥集成方』과 이의 底本인 『瑞竹堂方』에 ‘二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뒤에 나머지 약재들을 열거하고 ‘各一兩’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본래 『醫林撮要』에서도 ‘二兩’이라 되어 있는 것을 인쇄하면서 植字상의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52) 이는 『鄉藥集成方』, 卷二十五, 痰飲門(杏林書院, 192쪽)에 『瑞竹堂方』을 인용하여 ‘敵痰丸 治痰盛, 寬胸膈, 快氣’라 하고 ‘黑牽牛三兩 皂角二兩 去皮弦火中微燒 白礬桔 半夏麴炒 陳皮去白 各一兩 ○ 右爲細末, 煮蘿蔔, 和丸如梧子大, 每服四五十丸, 臨臥淡薑湯送下’라는 복용법을 자세하게 붙였다. 『鄉藥集成方』에 나온 이 처방의 底本인 『瑞竹堂經驗方』, 卷二, 痰飲(麗江出版社刊, 中國醫學大系, 14卷, 746-12쪽)에서도 같다.

는 아니라는 의미인 것 같다. 즉, 누룩과 함께 섞어서 말릴 정도인 것이지 불에다 볶을 정도로 ‘火氣’를 많이 쪼이면 ‘火熱’로 인하여 ‘痰盛’한 것을 다스림에 오히려 逆行한다는 것을 염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和丸하는 調劑法에 있어서는 『集成方』에 ‘右爲細末, 煮蘿蔔, 和丸如梧子大’라 되어 있고, 『瑞竹堂方』에서도 ‘右爲細末, 煮蘿蔔爲丸, 如梧桐子大’라 되어 있어, 『醫林撮要』와는 차이가 있다. 즉, 『醫林撮要』에서는 半夏에서도 ‘麴炒’하지 않았고, 여기 製法에서도 ‘煮蘿蔔’하지 않음으로서 원래 ‘痰盛’함을 다스리는데는 이러한 『集成方』의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 같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의 ‘痰盛’함은 「痰飲門」 자체가 ‘火熱’에 의한 ‘熱痰’을 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半夏를 썬어도 ‘麴炒’하지 않았고 ‘煮蘿蔔’의 製法을 쓰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은 전체적으로 朱丹溪의 학설을 계승한 虞搏의 입장을 반영하는 「痰飲門」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醫林撮要』에 인용된 『鄉藥集成方』의 治方들을 살펴보면, 楊禮壽는 滋陰降火의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하여 金元四大家 중의 朱丹溪의 학설을 많이 좇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醫林撮要』가 비록 『鄉藥集成方』을 인용하였지만, 丹溪의 주장이 虞天民에게 전승되어 완성된 『醫學正傳』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宋代의 의학적 사상은 『鄉藥集成方』에 심어져 있음을 알 수 있겠고, 약 100여 년의 세월을 두고 金元代의 사상이 『醫林撮要』에 녹아져 있음을 살펴 볼 수 있겠다.

3. 『鄉藥集成方』을 인용한 『醫林撮要』가 『東醫寶鑑』에 미친 영향

『東醫寶鑑』에 인용된 『鄉藥集成方』의 내용은 전부 3군데뿐이다. 『集成方』을 인용근거로 삼은 표시를 『東醫寶鑑』에서 ‘鄉集’으로 2군데 했고 ‘鄉藥’으로 1군데 했다. ‘鄉集’으로 표시한 인용문은 「咳嗽」의 ‘藍漆煎元’⁵³⁾과 ‘飴薑元’⁵⁴⁾의 2가지 처방이고, ‘鄉藥’으로 표시한 인용문은 「諸傷」의 ‘金傷散’⁵⁵⁾ 하나뿐이다. 그나마 이 3가지 처방도 『醫林撮要』에 인용된 『集成方』을 재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集成方』이 인용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사실은 『集成方』을 제외하고 ‘鄉藥’과 관련된 어떠한 治方도 『東醫寶鑑』에서는

53)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五, 「咳嗽」(南山堂, 472쪽)

54)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五, 「咳嗽」(南山堂, 469쪽)

55)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九, 「諸傷」(南山堂, 577쪽)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는 몇 가지 되지 않는 우리 나라의 醫方書에 대해 고의적으로 기피한 것으로 의심되어질 정도이다. 물론 許浚이 鄉藥方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이미 이 때 당시에 鄉藥이 갖는 의미가 상실된 상태인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東醫寶鑑』과 같은 중요한 方書에서 이렇게 鄉藥方을 쓰지 않는다면, 「集例」에서 밝힌 대로 『東醫寶鑑』에 ‘湯液篇’을 따로 설정하여 ‘鄉藥을 갖추어 쓰기 쉬우며 멀리서 구하거나 얻기 어려운 폐단은 없으리라’던 말⁵⁶⁾은 의미가 없지 않겠는가.

여하튼 『東醫寶鑑』에서 鄉藥方을 이용하지 않으려 했다고는 하나, 그래도 마침 『醫林撮要』와 같은 醫方書가 있고 그 撰者인 楊禮壽가 『東醫寶鑑』의 편찬작업에 참여함으로써, 그나마 鄉藥方의 쓰임이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1) 處方分析

여기서는 각각의 처방을 분석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다른 鄉藥方書의 쓰임새도 알아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① 藍漆煎圓⁵⁷⁾

咳嗽와 오래된 喘息⁵⁸⁾을 다스린다. 藍漆 2냥⁵⁹⁾ 人蔘⁶⁰⁾ 杏仁(껍질과 꼬트머리를 제거하고 밀기울로 炒하여 따로 가루로 만든다⁶¹⁾) 胡桃肉⁶²⁾ 각각 1냥씩⁶³⁾을 가루로 만들고, 꿀로 탄알 크기의 丸⁶⁴⁾을 지어 매번 1알씩⁶⁵⁾ 생강 달인 물로 먹는데 미음으로 먹어도 된다⁶⁶⁾. (『鄉藥集成方』 咳嗽門)⁶⁷⁾

56) 許浚, 『東醫寶鑑』, 集例(南山堂, 69쪽)

‘鄉藥則……(중략)……可易備用, 而無遠求難得之弊矣.

57) 『鄉藥集成方』에는 ‘藍漆元’이라 되어 있고 『東醫寶鑑』에는 『醫林撮要』와 비슷하게 ‘藍漆煎元’이라 되어 있다.

58) 『鄉藥集成方』에는 ‘久喘’의 2글자가 빠지고 그냥 ‘效嗽’라고만 되어 있다.

59) 『鄉藥集成方』에는 ‘一兩’이라 되어 있고 바로 뒤에 ‘去苗細末’이라는 藍漆의 修治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붙어 있다.

60) 『鄉藥集成方』에서는 ‘人蔘’이 ‘人蔘’으로 되어 있고, ‘去蘆細末’이라는 人蔘의 修治에 대해 보충 설명되어 있다.

61) 『鄉藥集成方』에는 杏仁의 修治에 대해 ‘湯浸去皮尖雙仁麩炒研’이라고 되어 있다.

62) 『鄉藥集成方』에는 ‘胡桃肉’에서 ‘肉’字가 빠지고 대신에 ‘去殼湯浸去膜研’이라는 胡桃의 修治가 보충 설명되어 있다.

63) 『鄉藥集成方』에는 ‘各 半兩’이라 되어 있다.

64) 『鄉藥集成方』에는 ‘煉蜜和丸’이라 되어 있으나, 의미상 변화는 없다.

65) 『鄉藥集成方』에는 ‘圓’字 대신에 ‘丸’이라 되어 있다.

이에 대해 『鄉藥集成方』은 『是齋百一選方』을 인용⁶⁸⁾하였고, 『東醫寶鑑』은 이 처방의 인용근거를 ‘鄉集’이라 하여 『鄉藥集成方』을 인용근거⁶⁹⁾로 삼고 있으나, 실제로는 『鄉藥集成方』 보다는 약재의 용량이나 인용된 문장들이 『醫林撮要』와 같다. 따라서, 『東醫寶鑑』에서의 직접적 인용근거는 『醫林撮要』이고, 『鄉藥集成方』은 인용된 原方書를 의미한다.

② 飴薑元⁷⁰⁾

冷으로 숨이 차고 기침하는 것⁷¹⁾을 다스린다. 갱엿⁷²⁾ 1근 乾薑 4냥⁷³⁾에서 먼저 乾薑을 가루로 만들고 重湯으로 엿을 녹여 묽은 죽처럼 다 되거든 건강가루를 넣고 잘 섞어서 늦그릇에 펼쳐놓아 영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빈속에 생각나는 대로 개어 먹는다(『鄉藥集成方』에는 乾薑이 3냥으로 되어 있고, 매번 대추 한 알 크기로 입에 넣고 침으로 녹여 먹기를 낮에 3번 밤에 2번 하라고 되어 있다).⁷⁴⁾

66) 『鄉藥集成方』에는 ‘米飲嚼下’라 되어 있으나 의미상 변동은 없다.

67) 楊禮壽, 『醫林撮要』, 卷之四, 咳嗽門(黑潮社, 190쪽)

藍漆煎圓 治咳嗽久喘. 藍漆 二兩 人參 杏仁 去皮尖麩炒另末 胡桃肉 各一兩 右末, 蜜丸 彈子大, 每服一圓, 薑湯下, 米飲亦得. 集成方, 咳嗽門.

68) 俞孝通 외, 『鄉藥集成方』, 卷二十四, 「諸效門」(杏林書院, 181쪽)

[藍漆元]治效嗽. 藍漆 一兩去苗細末 胡桃 去殼湯浸去膜研 人參 去蘆細末 杏仁 湯浸去皮尖雙仁麩炒研 各半兩 ○右煉蜜, 和丸, 如彈子大, 每服一丸, 米飲嚼下, 或以薑湯下.

69)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五, 「咳嗽」(南山堂, 472쪽)

[藍漆煎元]治痰嗽. 藍漆 二兩 人參 杏仁 胡桃肉 各一兩 右爲末, 蜜丸, 彈子大, 每一丸, 薑湯, 或米飲嚼下.

70) 이는 『鄉藥集成方』에 處方名이 없이 인용되어 있는데, 『集成方』의 인용문헌인 『聖濟總錄』에 ‘姜飴煎方’이라 되어 있으며, 『東醫寶鑑』에는 『醫林撮要』와 똑같이 ‘飴薑元’이라 되어 있다.

71) 이는 『鄉藥集成方』, 『聖濟總錄』, 『東醫寶鑑』에 모두 ‘治冷嗽’라고 되어 있다.

72) 『鄉藥集成方』과 이의 인용문헌인 『聖濟總錄』에는 ‘膠飴’라고 되어 있으나, 『東醫寶鑑』은 ‘黑糖’이라 되어 있다. 이것은 『東醫寶鑑』에서는 ‘膠飴’와 ‘飴糖’은 모두 ‘黑糖’이라고 주석을 달거나 일괄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이다.

73) 이는 그 修治方法에 있어서 『鄉藥集成方』에서는 ‘炮製三兩細末’이라 하였고, 『聖濟總錄』에서는 ‘炮製三兩爲細末’이라 하였는데, 『東醫寶鑑』에서는 ‘細末四兩’이라 하였다. 『東醫寶鑑』에서 용량을 ‘四兩’이라 한 것은 『醫林撮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74) 楊禮壽, 『醫林撮要』, 卷之四, 咳嗽門(黑潮社, 191쪽)

飴薑元 治冷喘咳嗽. 黑飴 一斤 乾薑 四兩 右先末乾薑, 重湯內溶飴, 盡化如稀粥, 入乾薑末, 十分和勻, 鋪於鑰盤, 待凝, 空心任意嚼. 集成方. 乾薑作三兩, 每服一棗大, 含化嚥津, 日三夜二.

이는 『鄉藥集成方』에 『聖濟總錄』을 인용하여 處方名이 실리지 않은 채로 [玉液散]의 처방 다음에 쓰여 있다.⁷⁵⁾ 이 처방의 인용근거로 삼고 있는 『聖濟總錄』에는 處方名이 ‘姜飴煎方’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내용이 같기⁷⁶⁾ 때문에, 이 처방이 『聖濟總錄』의 ‘姜飴煎方’에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다. 한편, 『東醫寶鑑』은 이 처방의 인용근거를 ‘鄉集’이라 하여 『集成方』에서 비롯됨을 명시⁷⁷⁾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集成方』 보다는 『醫林撮要』와 비슷하기 때문에, 『醫林撮要』가 직접적 인용문이고 『集成方』은 『醫林撮要』를 통한 인용된 原方書를 표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문장의 꼬트머리에 쓰여 있는 註釋은 본문과는 다르게 『集成方』에 되어 있음을 표시해주고 있다. 주석의 『集成方』에 대한 설명은 『集成方』을 인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集成方』과 『醫林撮要』와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醫林撮要』가 『聖濟總錄』이나 『集成方』을 비록 참고는 했을지언정 이 처방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름대로의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는 표시인 것이다. 그러기에 『醫林撮要』의 ‘飴薑元’이라 命名함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聖濟總錄』의 ‘姜飴煎方’과는 처방의 성격과 그 용법이 확연한 차이를 갖기 때문이다. 물론, 전혀 다른 처방이 아니기에 ‘乾薑’과 ‘飴糖’의 순서가 서로 뒤바뀐 處方名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集成方』의 처방은 『聖濟總錄』과 같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같을 수는 있지만, 『東醫寶鑑』의 처방은 『醫林撮要』와 같기 때문에 『聖濟總錄』이나 『集成方』과 다른 ‘飴薑元’이란 이름으로 『醫林撮要』와 같이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인용문헌에 있어서 비록 참고는 했을지언정 『醫林撮要』는 『集成方』을 인용문헌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東醫寶鑑』은 『醫林撮要』를 인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集成方』을 인용한 것으로 표시를 하였으니, 『醫林撮要』에 인용된 原方書로서 『集成方』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나, 실은

75) 俞孝通 외, 『鄉藥集成方』, 卷二十四, 「諸效門」(杏林書院, 181쪽)

治冷嗽. 乾薑 炮製三兩細末 膠飴 一斤 ○右拌均, 以瓷器盛, 置飯上蒸, 令極熟, 每服一棗大, 含化嚥津, 日三夜二.

76) 趙 佶, 『聖濟總錄』, 卷第六十五, 「咳嗽門」(人民衛生出版社, 上冊, 1182쪽)

治冷嗽. 姜飴煎方 乾薑 炮製三兩爲細末 膠飴 一斤. 右二味拌均, 以瓷器盛, 置飯上蒸, 令極熟, 每服一棗大, 含化咽津, 日三夜二

77) 許 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五, 「咳嗽」(南山堂, 469쪽)

[飴薑元]治冷嗽. 黑糖 一斤 乾薑 細末四兩 右先熔糖, 次下薑末, 和勻, 待凝作片, 常常嚼下.

許浚은 『集成方』을 한번 비교조차하지 않았던 것이다.

③ 金傷散⁷⁸⁾

쇠붙이로 상처가 나서 크게 헤진 것을 다스린다. 5월 5일 아침⁷⁹⁾에 4사람이 각기 사방으로 나가서 5리 내에서 한 가지씩 풀과 나무와 줄기와 잎을 각 종류마다 반 줍씩 뜬데 떨어뜨리거나 흘리지 말아야 한다. 같은 날 정오에 일을 하는데, 썰어서 방아로 찧을 때 석회 1말을 넣고 찧는데 아주 문드러지게 찧는다. 이어서 먼저 크고 실한 뽕나무 3대를 골라 밑동에 구멍을 뚫는데 약이 다 들어가도록 한다. 그런 다음 구멍에 약을 나누어 단단하게 다져 넣은 후에 뽕나무 껍질로 동여매고 삼베를 뽑아 석회진흙을 발라서⁸⁰⁾ 氣가 새지 않도록 하여 다시 뽕나무 껍질로 묶어 둔다. 둘러 싼 것을 9월 9일 午時가 되면 꺼내어 100일 동안 그늘에 말렸다가 약을 충분히 뺏아서 햇볕에 말려 굳게 만들고⁸¹⁾ 다시 뺏아서 명주 그물의 체로 쳐서 저장해 둔다. 무릇 쇠붙이로 손상을 입어 부러지거나 피가 날 때 이 약으로 싸매고 움직이지 않으면⁸²⁾ 10일을 넘지 않아 차도가 있으며 굼지도 않고 붓지도 않으며 과상풍을 염려할 것도 없다. 만일 손상된 지 여러 날이 지나서 약을 구했을 때는 모름지기 따뜻한 물로 씻어 피를 낸 뒤에 곧바로 붙인다. 이 약의 효험이 아주 크다.(『救急方』)(『鄉藥集成方』에는 ‘百草散’이라고 이름한다)⁸³⁾

78) 이는 『醫林撮要』가 주로 인용한 『救急方』에는 ‘金瘡大散方’이라 되어 있고, 참고로 삼은 『鄉藥集成方』에는 ‘百草散’으로 되어 있다. 또한 『診解救急方』이 인용한 『太平聖惠方』에는 ‘金瘡大散方’이라 되어 있고, 『集成方』의 인용문헌인 『聖濟總錄』에는 ‘百草散方’이라 되어 있다. 한편, 『東醫寶鑑』에는 ‘鄉藥’이라 하여 『集成方』을 인용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은 『醫林撮要』를 인용문헌으로 삼았기 때문에 『醫林撮要』와 마찬가지로 ‘金傷散’이라 하였다.

79) 『診解救急方』에는 ‘平旦’이라 되어 있다.

80) 『診解救急方』에는 ‘用麻搗石灰密泥’라 되어 있다.

81) 『診解救急方』에는 ‘日曝令乾’이라 되어 있다.

82) 『診解救急方』에는 ‘更’자 대신에 ‘令’자로 되어 있다.

83) 楊禮壽, 『醫林撮要』, 卷之九, 「金瘡」(麗江出版社, 『韓國醫學大系』, 9권, 575쪽)

金傷散 治金瘡大散方 五月五日平朝, 使四人各出四方, 各於五里內, 採一方草木莖葉, 每種各半把, 勿令脫漏一事. 日正午時切, 確搗, 用石灰一斗, 搗令極爛. 因先撰揀大實桑樹三兩株, 鑿作孔, 令可受藥. 然分藥於孔中, 實築令堅, 後以桑樹皮蔽之, 用麻扎, 塗石灰泥, 令不泄氣, 更以桑皮纏之令牢. 至九月九日午時, 出取陰乾, 百日藥成, 搗之, 日曝令堅, 更搗絹羅貯之. 凡有金瘡傷折出血, 用藥封裹, 勿更轉動, 不過十日差, 不膿不腫, 不畏風. 若傷後數日, 始得用藥, 須煖水洗令出血, 卽傅之. 此藥大驗. 救急方 ○集成方, 名百草散.

여기서는 『救急方』을 인용하고 『鄉藥集成方』을 보조로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救急方』은 인용근거를 『太平聖惠方』에 두고 있으며, 『集成方』은 『聖濟總錄』에 두고 있다. 楊禮壽가 『醫林撮要』에서 『救急方』을 인용근거로 삼은 것은 『集成方』 보다는 『救急方』이 原著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救急方』이 인용근거로 삼은 『聖惠方』은 『聖濟總錄』보다 약 125년 먼저 이루어져 간행되었던 것이기에 『聖惠方』 100권을 확장한 『聖濟總錄』 200권은 새로운 의약정보가 많이 증보된 것이다. 그러나, 인용에 있어서는 후대로 갈수록 원저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필요로 한 『集成方』은 『聖濟總錄』을 기준으로 삼았고, 보다 확실한 근거를 삼기 위해 『醫林撮要』는 『聖惠方』이 인용되어 있는 『救急方』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러한 인용근거의 차이로 같은 처방에 대하여 문헌마다 내용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聖惠方』 84)을 인용한 『救急方』 85)은 『聖濟總錄』 86)을 인용한 『集成方』 87) 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醫林撮要』와 『集成方』은 많이 다

84) 王懷隱 외, 『太平聖惠方』, 卷第六十八, 「治金瘡諸方」(平常心出版社, 『太平聖惠方(二)』, 2108쪽)

治金瘡大散方. 五月五日平旦, 使四人出四方, 各於五里內, 採一方草木莖葉, 每種各半把, 勿令漏脫一事. 日正午時切, 確搗, 用石灰一斗(豆+斗), 搗令極爛. 仍先撰揀大實桑樹三兩株, 鑿作孔, 令可受藥. 後分藥於孔中, 實築令堅, 後以桑樹皮蔽之, 用麻搗, 石灰密泥, 令不泄氣, 更以桑皮纏之令牢. 至九月九日午時, 出取陰乾, 百日藥成, 擣之, 日曝令乾, 更擣絹羅貯之. 凡有金瘡傷折出血, 用藥封裹, 勿令轉動, 不過十日差, 不膿不腫, 不畏風. 若傷後數日, 始得用藥, 須暖水洗令血出, 卽敷之. 此藥大驗. 預宜多合之, 金瘡之要, 無出於此, 雖突厥質汗黃丹, 未能及之.

85) 撰著者 미상, 『救急方』, 「金瘡」第十九(한글학회, 『救急方 上·下』, 169쪽)

治金瘡大散方. 五月五日平旦, 使四人出四方, 各於五里內, 採一方草木莖葉, 每種各半把, 勿令漏脫一事. 日正午時切, 確擣, 用石灰一斗(豆+斗), 擣令極爛. 仍先撰揀大實桑樹三兩株, 鑿作孔, 令可受藥. 然分藥於孔中, 實築令堅, 後以桑樹皮蔽之, 用麻擣, 石灰密泥, 令不泄氣, 更以桑皮纏之令牢. 至九月九日午時, 出取陰乾, 百日藥成, 擣之, 日曝令乾, 更擣絹羅貯之. 凡有金瘡傷折出血, 用藥封裹, 勿令轉動, 不過十日瘡, 不膿不腫, 不畏風. 若傷後數日, 始得用藥, 須暖水洗令血出, 卽傅之. 此藥大驗.

86) 趙 佶, 『聖濟總錄』, 第一百三十九, 「金瘡門」(人民衛生出版社, 下冊, 2302쪽)

治金瘡, 續筋骨. [百草散方] 右五月五日, 取百草心, 和石灰搗熟成塊鑿桑木, 北面近下作孔, 團藥在內, 外又以桑木補孔, 并皮覆, 釘四畔令固, 至七月七日, 取出曝乾爲散, 傅瘡大良.

87) 俞孝通 외, 『鄉藥集成方』, 卷四十八, 「折傷跌撲門」(杏林書院, 357쪽)

[百草散]治金瘡, 續筋骨. 五月五日, 取百草心, 和石灰, 搗熟成塊, 鑿桑木, 北面近下孔, 團藥在內外, 右以桑木補孔, 并皮覆釘四畔, 令固至七月七日, 取曝乾爲散, 傅瘡大良.

르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醫寶鑑』 88)에는 ‘鄉藥’이라 하여 『集成方』을 인용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集成方』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醫林撮要』와 오히려 유사하다.

2) 分析結果

이상의 결과에 따라 『鄉藥集成方』의 활용이 『醫林撮要』에 많이 쓰여지고 있으며, 이는 곧바로 『東醫寶鑑』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에서 직접적으로 『集成方』을 거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것이 『醫林撮要』에 의한 것임을 볼 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東醫寶鑑』과 『醫林撮要』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에 따라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醫林撮要』에 기재된 기타 鄉藥方書에 대해서도 『東醫寶鑑』과 비교함으로써, 『東醫寶鑑』에 보다 많은 鄉藥方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Ⅲ. 結論

이상과 같이 『醫林撮要』에 인용된 『鄉藥集成方』의 운용상태를 비교하여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醫林撮要』는 각 門마다 醫論부분과 治方부분으로 나누어 있는데, 여기에 인용되어 있는 『鄉藥集成方』의 내용 중 30개 處方과 92개 單方으로 모두 122개 治方이 사용되어 있으며, 醫論에 관해서는 다만 1개 조문이 쓰여져 있을 뿐이다. 『鄉藥集成方』의 醫論을 적게 인용한 것은 『醫林撮要』의 醫論은 이미 丹溪學派의 영향을 받은 虞搏의 『醫學正傳』에 기초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2. 『醫林撮要』에 인용된 『鄉藥集成方』의 治方の 분포는 『醫林撮要』의 13권 가운데 卷之七과 卷之十三의 2권을 제외하고 거의 전편에 걸쳐서 비교적 고르게 인용되어 있으므로, 『醫林撮要』는 『鄉藥集成方』을 의도적으로 비중있게 다루고

88) 許 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九, 「諸傷」(南山堂, 577쪽)

[金傷散]治一切金瘡, 重午日, 早朝, 使四人, 各出四方, 採草木莖葉 各半把. 至日午時, 入石灰 一斤, 同搗極爛, 鑿大桑木 三兩, 株作孔, 納藥實築, 以桑皮蔽之, 油調石灰, 密塗之, 勿令泄氣, 更以桑皮填固. 至九月九日午時, 取出陰乾百日, 搗羅爲末, 如遇傷疹之, 神效'

있음을 알 수 있다.

3. 『鄉藥集成方』을 통해서 『醫林撮要』에 재인용된 醫方書들은 중국에서는 唐代, 宋代, 金元代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麗末鮮初의 諸鄉藥方書들을 비교적 폭넓고도 고르게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鄉藥集成方』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修正을 가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誤謬를 범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原文에 충실하려는 의도와 자신의 임상적 경험과 虞搏의 『醫學正傳』에 영향을 받은 滋陰降火의 학술적 사상에 의하여 修正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鄉藥集成方』을 인용한 『醫林撮要』의 治方들은 『東醫寶鑑』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실제로는 『東醫寶鑑』에서 인용근거를 다른 醫方書로 기록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이미 그것은 『東醫寶鑑』의 여러 곳에 인용되어 녹아든 것으로 파악된다.

이상의 결과로, 향후 『鄉藥集成方』과 『醫林撮要』 그리고 『東醫寶鑑』의 세 醫方書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더 많은 부분이 상관관계를 갖게 될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우리 나라의 고유의 鄉藥方書들에 대해서도 비교하고 고찰하여, 우리 의학의 계통이 보다 확고히 설정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IV. 參考文獻

1. 楊禮壽, 『醫林撮要』(國譯 韓醫學大系, 8권), 海東醫學社, 1999, 서울.
2. 楊禮壽, 『醫林撮要』,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9권, 10권, 麗江出版社, 1988, 서울.
3. 楊禮壽, 『醫林撮要』, 黑潮社, 1968, 서울.
4. 兪孝通 외, 『鄉藥集成方』, 杏林書院, 1973, 서울.
5. 撰者미상, 『救急方諺解』(『救急方 上·下』), 한글학회, 1996, 서울.
6. 許 浚, 『東醫寶鑑』, 南山堂, 1987, 서울.
7. 沙圖穆蘇, 『瑞竹堂經驗方』(『中國醫學大系』, 14권), 麗江出版社, 1988, 서울.
8. 巢元方, 『諸病源候論』, 大城出版社, 影印本.

9. 王懷隱 외, 『太平聖惠方』, 平常心出版社, 影印本.
10. 李 梴, 『醫學入門』, 南山堂, 1985, 서울.
11. 趙 佶, 『聖濟總錄』, 人民衛生出版社, 1992, 北京.
12. 陳 言, 『三因極一病證方論』(『中國醫學大系』, 11권), 麗江出版社, 1988, 서울.
13. 金洪均, 『醫林撮要의 醫史學的 研究』, 慶熙韓醫大, 博士學位論文, 2000, 서울.